

THREE DEVILS BY THE BEDSIDE

JEONGSU WOO

우정수:
머리맡에
세 악마

2024.5.24.
- 6.30.



A

SJ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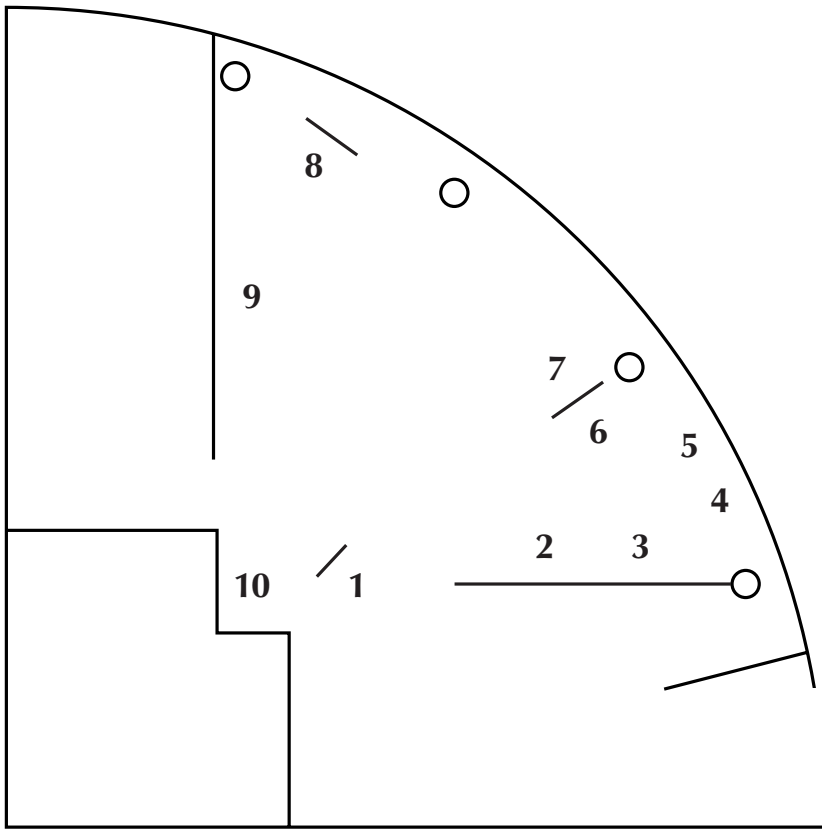
우정수는 중세의 성서, 철학서의 삽화, 미술사의 주요 회화, 소설이나 만화의 캐릭터 등 다양한 시대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참고해, 이들의 맥락을 해체하고 알레고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이미지 서사의 가능성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불면증에 관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유럽 중세의 어느 기사가 ‘머리맡에 세 악마’로 인해 오랜 세월 불면증에 시달리다 캔터베리 대성당의 수도사를 만나 기적적으로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발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신작 〈머리맡에 세 악마〉(2023-2024)는 불면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이따금 꾸는 꿈처럼 파편적인 이미지 시퀀스를 보여줍니다. 2열로 배열된 10개의 캔버스는 바느질 된 패브릭의 패턴과 함께 하나의 거대한 화면을 만들어 내는데, 작가는 이 자리에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 페인터’를 반복적으로 등장시킵니다. 이 캐릭터는 잠에 들지 못하기도 하고, 이젤 앞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지만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악마의 유혹에 솔깃하기도 합니다. 한편, 악마 역시 화면 곳곳에 출현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괴테의 파우스트 속 삽화, 프란시스코 고야의 회화 속 한 장면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악마 캐릭터를 변주하고 곳곳에 위치시켜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하도록 안내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면의 파편들은 미스터 페인터의 인생유전을 보조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도록 작동합니다.

미스터 페인터, 악마, 작가가 차용한 역사적 회화의 캐릭터가 화면 속에서 자신의 사건을 만든다면, 거품 넘치는 맥주잔을 들고 있는 캐릭터는 곳곳에 있는듯 없는듯 무심히 정면을 응시하면서 맥거핀처럼 다양한 장소에 나타납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 캐릭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이 전시가 제공하는 또다른 재미가 됩니다.



우정수 작가는 ‘하나하나 연결된 선들이 이미지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말하며, 자신의 작업은 ‘선으로부터 비롯된 회화’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선은 면이 되고, 면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며, 색을 끌어들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림들이 됩니다. «우정수: 머리말에 세 악마»는 끊임없는 드로잉과 시각 문화에 대한 예술적 탐구를 통해서 회화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알레고리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동시대 사회문화의 신경증적 현상들에 대한 냉소적 풍자를 생산해내는 작가의 도전을 보여줍니다.



1F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

- 1 <미스터 페인터 #1>
2024, 캔버스에 패브릭 콜라주와 아크릴릭, 116.8×91 cm
- 2 <머리말에 세 악마 #7>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160×160 cm
- 3 <머리말에 세 악마 #8>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160×160 cm
- 4 <미스터 페인터 #4>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53 cm
- 5 <미스터 페인터 #3>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53 cm
- 6 <머리말에 세 악마 #9>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160×160 cm
- 7 <머리말에 세 악마 #10>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160×160 cm
- 8 <머리말에 세 악마 #6>
2024, 캔버스에 패브릭 콜라주와 아크릴릭, 170×170 cm
- 9 <머리말에 세 악마>
2023-2024, 캔버스에 패브릭 콜라주와 아크릴릭, 261×970 cm
- 10 <머리말에 세 악마 #11>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120×120 cm

우정수(b. 1986)는 다양한 시대의 삽화와 신화, 서사극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넘나 들며 채집한 서사와 이미지를 통해 자신만의 화면을 재구성한다. 작가는 역사적 맥락을 벗어난 이미지의 이면을 주제로 거침없고 자유로운 붓의 움직임과 판화기법을 혼용한 특유의 드로잉을 기반으로 냉소적이지만 유머러스하게 오늘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 « Palindrome »(BB&M, 2022), « Where Is My Voice »(두산갤러리 서울, 2020), « Tit for Tat »(두산갤러리 뉴욕, 2020), « Calm the Storm »(금호미술관, 2018) 등이 있으며, «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 »(제주비엔날레, 2022), « 젊은 모색 202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1), «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 »(일민미술관, 2021), « 강박² »(서울시립미술관, 2019), « 상상된 경계들 »(광주비엔날레, 2018) 등 국내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우정수: 머리말에 세 악마

2024. 5. 24. - 6. 30.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

관람시간

12:00-19:00

(월요일 휴관)

진행

이예인

(아트선재센터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

입장권

10,000원 25세-64세

7,000원 19세-24세, 65세 이상

예술인패스 소지자

주최

아트선재센터

5,000원 9세-18세

무료 그 외 연령 및 장애인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ICOM·CIMAM·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협찬

BB&M

도슨트 전시해설 안내

일시 금요일-일요일 14:00, 16:00

참여 방법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

그래픽 디자인

콘택트

© 2024.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A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02 733 8949

F 02 733 8377

W www.artsonje.org

C